자동차

Car

'車지붕 열고 달려볼까'

컨버터블 시장 달아 오른다

재규어 XKR

볼보 C70

벤츠 SLK350

벤트리 컨버터블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매년 수입차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컨버터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컨버터블은 평상시 세단처럼 사용하고, 도심을 벗어나면 오픈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성과 희소성을 강조하는 수입차 수요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동안 컨버터블은 가격이 1억원대에 이르는데다 대부분 2인승으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또 한국의 변덕스런 날씨 탓에 지붕을 열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제한돼 있고, 상습적인 교통정체, 심각한 대기오염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수입차 업계를 중심으로 3천만원대의 컨버터블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젊은층 고객들을 겨냥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수입차 컨버터블 시장 장악**=2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45대에 불과했던 컨버터블 판매실적이 지난해 1천277대로 늘어나면서 3년새 51%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수입차업체들은 컨버터블 모델 출시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달 열린 '2007서울모터쇼'의 특징 가운데 하나도 컨버터블 차량이 많았다는 점이다. 일반 무대는 물론 신차 발표 무대나 턴테이블에는 어김없이 컨버터블 모델이 전시됐다. 또 콘셉트카에서도 컨버터블 모델이 대거 등장하면서 서울모터쇼에 선보인 컨버터블 차량만 20여종에 달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시장을 주도하는 현대·기아차는 컨버터블 출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도로의 특성상 교통정체가 잦고 대기오염이 심한 상황에서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컨버터블 차량은 개발비용에 비해 시장이 협소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1996년 출시된 최초의 국산 컨버터블인 기아차 엘란의 실패사례도 현대·기아차의 개발의지를 꺾는 요소다. 당시 엘란은 2000년 1월까지 생산되면서 4년간 불과 793대만 팔린 뒤 단종됐다.

현재 국산차 업계에서 컨버터블 출시를 계획중인 곳은 GM대우가 유일하다. GM대우는 지난해 부산모터쇼와 올해 서울모터쇼에서 잇따라 선보인 컨버터블 차량 'G2X 로드스터'를 올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 컨버터블**=컨버터블은 멋스럽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에 비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부러움과 동시에 질시의 대상이 되곤 한다.

푸조 '206CC'·포드 '머스탱'
가격 3천만원대 중저가 인기
지난해 1,200대 팔려 급성장

특히 재규어의 'XK 컨버터블'과 'XKR 컨버터블'은 국내에서 판매중인 컨버터블 가운데 가장 비싼 차로 꼽힌다. 'XK 컨버터블'의 뼈대는 100% 알루미늄 소재를 써 경쟁차종에 비해 무게를 줄이면서도 우주항공기술인 '리벳-본딩' 방식을 도입해 오히려 더 단단하다.

'XKR컨버터블'은 'XK'의 고성능 버전으로, 속도변화에 따라 연료 유입량이 민감하게 조절되는 AES(Active Exhaust System)를 적용해 가속 시에는 스포츠카다운 강한 배기음과 폭발적인 힘을 낸다.

렉서스의 'SC430'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성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모델이다. 미국 자동차품질 조사기관인 JD파워의 2006년 내구성 품질조사에서 프리미엄 스포티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아우디의 'A4 2.0 카브리올레'와 볼보의 'C70'은 세단의 실용성과 컨버터블의 화려함을 동시에 갖췄다. C70은 차량 충돌시 커튼식 에어백이 운전석과 조수석 양편에서 머리 높이까지 수직으로 솟구쳐 머리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BMW의 3시리즈 컨버터블과 'Z4 3.0si 로드스터', 메르세데스벤츠의 'SLK200'과 'SLK350'도 수준급 컨버터블로 분류된다.

현재 국내에는 10여종의 컨버터블이 판매되고 있다. 이 가운데 3천만원대는 최근 푸조가 출시한 '207CC'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PT 크루저', 포드의 '머스탱', 폭스바겐의 '뉴 비틀 카브리올레', 'MINI 쿠퍼' 등이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컨버터블은 푸조의 '206CC'로 한 해 팔리는 컨버터블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가격이 3천만~3천400만원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컨버터블 중 가장 저렴한 데다 표준 연료소비효율이 ℓ당 11.8km로 경제성도 뛰어나다. 푸조는 '206CC'의 변경모델인 '207CC'도 조만간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크라이슬러의 'PT크루저 카브리오', BMW의 '미니쿠퍼 컨버터블', 폴크스바겐의 '뉴비틀 카브리올레'도 3천만원대 컨버터블이다.

'PT크루저 카브리오'는 4인용으로 컨버터블답지 않게 넓은 실내공간이 특징. 트렁크 공간도 여유 있는 편이어서 여행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2400cc 직렬 4기통 엔진과 수동기능을 더한 오토스틱으로 운전하는 재미를 높였다.

'미니쿠퍼 컨버터블'과 '뉴비틀 카브리올레'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충돌테스트를 충족시킬 만큼 안전성이 뛰어나다. 이밖에 포드의 '머스탱(4천200만원)', 푸조의 '307CC(4천650만원)', GM의 '사브 9-3 컨버터블(5천635만원)'도 비교적 저렴한 컨버터블에 속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붕이 천이면 '소프트톱'·금속이면 '하드톱'
유럽서는 카브리올레·로드스터라 불리기도

■ **컨버터블에 관한 궁금증?**

컨버터블(convertible)은 지붕이 뚫려 있어 국내에서는 보통 오픈카라고 불리지만 컨버터블, 카브리올레(cabriolet), 로드스터(roadster) 등의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다. 컨버터블은 미국식 용어로, 차의 지붕을 여닫을 수 있도록 '변환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따왔다. 반면 유럽에서는 카브리올레 또는 로드스터란 이름이 더 흔하다. 로드스터는 컨버터블 중에서도 2인승 스포츠카의 의미가 강하고, 이탈리아에서는 거미를 닮았다는 뜻에서 '스파이더'로 불린다.

컨버터블은 지붕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지붕이 천 소재면 소프트톱, 금속이면 하드톱이라고 한다. 소프트톱은 차량의 무게가 가벼워 주행시 속도감을 훨씬 더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지붕이 찢어질 우려가 있고,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하드톱은 지붕만 닫으면 일반 승용차와 다를 바 없어 최근에는 하드톱이 주를 이룬다. 하드톱은 대부분 지붕 개폐방식이 자동식으로, 지붕을 닫았을 때는 세단이나 마찬가지 모습이어서 스포츠카와 세단의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컨버터블은 또 버튼 하나로 지붕이 열리고 닫히는 '전자동'과 일부 장치를 손으로 조작해야 하는 '반자동'으로 구분되며, 반자동의 경우 소프트톱 차량에 많이 장착돼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수입차업계 '광주상륙'
한불모터스 등 오픈

최근 광주지역의 외제차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수입차 업계의 '광주 상륙'이 잇따르고 있다.

한불모터스는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호남지역 최초로 푸조 광주전시장을 공식 오픈했다. 이 전시장은 총 400여평 규모로, 지하 1층에 전시장을 설치하는 한편 지하 1층에는 140여평의 서비스센터를 마련해 논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다임러크라이슬러 코리아도 최근 광주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에 전시장을 새롭게 오픈했다. 97평에 6대의 차량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02년부터 크라이슬러 광주지역 공식딜러로 선정된 선일모터스가 전시장을 운영한다.

혼다코리아도 올해 광주를 비롯한 대구, 대전, 인천 등에 전시장을 개장키로 하는 등 수입차 업계의 광주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